



초등학생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

김신정¹⁾ · 이정은²⁾ · 강경아³⁾ · 송미경⁴⁾ · 문선영⁵⁾ · 장은영⁶⁾ · 김성희⁷⁾ · 이숙경⁸⁾

1)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2) 동남보건대학 응급구조과, 3)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4) 경주 동천초등학교 보건교사
 5) 신흥대학 간호과, 6)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7) Michigan대학교 박사후 과정, 8)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 Abstract =

Cognition about First Aid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im, Shin-Jeong¹⁾ · Lee, Jung-Eun²⁾ · Kang Kyung-Ah³⁾ · Song, Mi-Kyung⁴⁾
 Moon, Sun-Young⁵⁾ · Chang, Eun Young⁶⁾ · Kim, Sung Hee⁷⁾ · Lee, Sook Kyung⁸⁾

1)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2)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ongnam Health College
 3) Department of Nursing, Samyook University, 4) School Nurse, DongChun Elementary School
 5) Department of Nursing, ShinHeung College, 6)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Medicine, SungKyunKwan University
 7) Post Doctoral Research Fellow, University of Michigan, 8) Doctoral Candidate, Ewha Womans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first aid education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data from 720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ults:** 1) The mean score for cognition of first aid education of the students was high with a score of 2.64 (± 0.30). 2) The mean scores for the 11 categories were, 「Fire & Burns」, 2.78 (± 0.40), 「Poisoning」, 2.77 (± 0.47), 「Thermal injuries」, 2.75 (± 0.51), 「Rescue & moving」, 2.73 (± 0.37), 「Bites」, 2.72 (± 0.44), 「General first aid」, 2.64 (± 0.37), 「Wounds」, 2.59 (± 0.39), 「Removing foreign bodies」, 2.58 (± 0.46),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2.57 (± 0.59), and 「Musculoskeletal injuries」 and 「Others」, 2.54 (± 0.51 , ± 0.53). 3)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gnition of first aid education according to student's gender ($t=-3.012$, $p=.003$), and judgement about the emergency situation ($F=3.411$, $p=.034$).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e necessity of developing effective first aid education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 words : Cognition, First aid, Students

주요어 : 초등학생, 응급처치, 교육, 인식

교신저자 : 김신정(E-mail: ksj@hallym.ac.kr)

투고일: 2008년 12월 28일 심사완료일: 2009년 1월 17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Shin-Jeong(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1, Okchun-dong, Chunchon, Kwangwon-do 200-702, Korea

Tel: 82-33-248-2721 Fax: 82-33-248-2734 E-mail: ksj@hallym.ac.kr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현재 아동의 국내·외 사망원인 1위는 사고로, 사고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Kim, Park, & Lee, 2006).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모든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안전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평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Won, 2003). 즉, 매일의 우리 생활에서 응급상황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때와 장소를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여 사고 환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망 역시 증가하고 있어(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응급처치란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Emergency Medicine Law, 2008). 응급환자발생 시 가장 결정적인 초기의 요인은 전문적인 응급처치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응급상황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초 반응자이다. 대부분의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는 전문가보다는 일반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Lubrano et al., 2005)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Kim, Cho & Kim, 2007).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 의료인력의 도착 전 현장인에 의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망률과 장애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병원에 가기 전까지 혹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Cho & Oh, 2006; Kwon & Chong, 2003).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초기의 올바른 대처능력은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응급처치 교육이다(Kim, Kim, Park, & Kim, 1999). 응급처치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갖추어져 있으면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가족이나 타인의 사망과 불구를 최소한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응급처치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공동으로 실시되어야 하나, 이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은 학교로, 여기에는 교육을 위한 인력과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교육 대상자를 확보하고 있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학습에 대한 흡수력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효과는 배가되고, 또한 학부모 과급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이점 있다(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2004). Park(2005)은 초등학생의 응급처치 실기교육 효과가 성인보다 뛰어나다고 하였으며 Cho 등(2006)은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시작하여 중·고등학교 때 보다 많이 교육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Lee(2003)도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응급처치 교육은 일정한 시기에 단편적으로 교육하기보다는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연령에 맞게 점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된 선진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응급의료시스템을 국가차원의 프로그램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보건교육 교과과정에 기본 인명구조술이라는 통합훈련프로그램을 권고하고 있고(Seo, 2006) 노르웨이에서는 1961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 학교의 의무교육으로 자리 잡았으며 영국은 각 학교마다 재량권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다(Lewis, Fulstow, & Smith, 1997).

우리나라에서의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은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이 학년별로 차별화되어 있지 않고 지속성도 없고 일부 내용이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Lee, 2002)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응급처치 교육 내용을 분석한 Kim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목 중에서는 [체육] 교과에서만 다루고 있었으며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에서는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예고도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아주 간단한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법도 몰라서 무방비 상태로 보건실로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Seo, 2006).

Kim 등(1999)은 학교에서의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하였다. Hong, Nam, Chai, We와 Kim(2001)의 연구에서는 가장 적절한 응급처치 교육 시기로, 초등학교가 38.6%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이 25.2%, 중학교가 24.9%, 고등학교가 11.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2004)의 보고서에서도 초등학교가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와 Oh(2006)의 연구에서도 응급처치 교육시기로 가장 알맞은 시기는 초등학교라고 언급하였으며 Kwon과 Chong(2003)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가 41.9%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이 29.0%, 중학교 21.0%, 고등학교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Kim 등(200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초등학생에게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89.0%로 나타났다. Park, Chung과 Park(2001)은 신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을 하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성

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이 시기에 응급처치 교육이 가장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Lubrano 등(2005)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 장기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많은 조사결과는 초등학생 기간이 응급처치 교육 습득으로 적절한 시기라는 것을 암시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 하반기부터 대한심폐소생협회(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2008)에서 「초등학교 1,000학급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전국의 초등학교 1,000곳을 선정하여 각 학교의 5학년 또는 6학년 한 학급만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교육은 CPR Anytime이라는 개인 마네킹을 이용하여 보조강사가 시범을 보이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마네킹 인형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적 상황으로 비추어볼 때,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동에게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반드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응급처치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 시점에서는 먼저 응급처치 교육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Bae(2007)도 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급처치 교육의 요구도는 높지만, 학생들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응급처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에 비추어,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받기에 적절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추후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후기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초등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응급상황 관련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인식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에 해당되는 초등학생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4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Kim et al., 2008)를 통해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에서는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Lester, Weston, Donnelly, Assar와 Morgan(1994)이 응급처치에 포함되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연령은 11세(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됨)라고 한 점, Lubrano 등(2005)이 초등학교 저학년은 인지발달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직접적으로 응급처치와 관련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초등학교 보건교사 3명, 아동간호학 교수 3명, 응급구조과 교수 2명, 응급의학과 교수 2명 등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이 적절한 시기를 문의한 결과,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 응급처치에 대한 개념이나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각 360명씩 총 7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대상자 수는 지역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한 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년이 90명이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180명씩을 대상으로 하여 정해졌다.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대도시, 중소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 수집할 수 있는 4개 학교를 소개받았다. 그런 후 전화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허락을 받았으며 연구자가 직접 설문조사를 허용하는 2개 학교의 경우는 직접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각 학급의 대상자에게 설문내용 및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의사를 허락받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상자가 참여를 허락한다는 고지동지(informed consent) 내용을 포함하여 대상자의 서명을 받았으며, 설문지는 대상자에게 나누어 주고 바로 수거하였다(응답 소요시간: 평균 10분 이내).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재차 설명하고 대상자의

허락 하에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료수집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담당교사는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하기로 서명을 한 학생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어 대상자 본인이 직접 읽고 표기를 하게 한 후 즉시 회수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0분 이내이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인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은 응급처치에 대한 문헌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분류된 「응급처치의 원칙」, 「구조 및 운반」, 「화재 및 화상」, 「심폐소생술」, 「근 골격 손상」, 「열·냉 손상」, 「상처」, 「중독」, 「교상」, 「이물 제거」, 「기타」의 11개의 범주(Kim et al., 2008)를 기초로 하여 보건교사 3명, 아동간호학 교수 3명, 응급구조과 교수 2명, 응급의학과 교수 2명으로 구성된 10명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 수정, 보완한 후 4회에 걸쳐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는데 CVI 계수는 95.1%로 높게 나타났다. 본 도구는 28문항의 3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필요하지 않다’ 1점, ‘보통이다’ 2점, ‘필요하다’ 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α =.907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

육에 대한 인식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통계적 검증의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720명으로 5학년과 6학년 모두 각각 360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아가 52.6%(379명)로 여아(47.4%, 341명)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10-12세의 범위로 평균 11.2(±.73)세로 나타났다. 형제 수는 1-6명의 범위로 평균 2.21(±.64) 명으로 나타났는데, 형제 순위는 첫째가 44.3%(319명)이었으며 둘째 이상인 경우가 55.7%(401명)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6.0%(61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97.8%(704명)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고 조부모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13.9%(100명)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응급상황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응급상황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처했던 경험은 ‘있다’는 경우가 45.6%(328명)이었으며 ‘없다’는 경우가 54.4%(392명)로 나타났는데, ‘있다’는 경우는 5학년이 47.8%, 6학년이 43.3%로 나타났으며 남아가 52.2%로 여아(38.1%)보다 많았다. 응급상황에 처했던 경험에 따라서는 ‘있다’는 경우와 ‘없다’는 경우에서 모두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3.0%, 60.7%),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 요구는 ‘원한다’는 경우가 각각 91.5%와 91.3%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Related to Emergency Situations

(N=72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Experience of emergency situation		Judgement about emergency situation			Education needs for emergency situation	
			Yes	No	Very good	Moderate	Not good	Yes	No
Grade	5th	360(50.0)	172(47.8)	188(52.2)	139(38.6)	205(56.9)	16(4.4)	328(91.1)	32(8.9)
	6th	360(50.0)	156(43.3)	204(56.7)	146(40.6)	207(57.5)	7(1.9)	330(91.7)	30(8.3)
Gender	Boy	379(52.6)	198(52.2)	181(47.8)	162(42.7)	205(54.1)	12(3.2)	338(89.2)	41(10.8)
	Girl	341(47.4)	130(38.1)	211(61.9)	123(36.1)	207(60.7)	11(3.2)	320(93.8)	21(6.2)
Education needs for emergency situation	Yes	658(91.4)	300(45.6)	358(54.4)	260(39.5)	381(57.9)	17(2.6)		
	No	62(8.6)	28(45.2)	34(54.8)	25(40.3)	31(50.0)	6(9.7)		
Judgement about emergency situation	Very good	285(39.6)	141(49.5)	144(50.5)				260(91.2)	25(8.8)
	Moderate	412(57.2)	174(42.2)	238(57.8)				381(92.5)	31(7.5)
	Not good	23(3.2)	13(56.5)	10(43.5)				17(73.9)	6(26.1)
Experience of emergency situation	Yes	328(45.6)			141(43.0)	174(53.0)	13(4.0)	300(91.5)	28(8.5)
	No	392(54.4)			144(36.7)	238(60.7)	10(2.6)	358(91.3)	34(8.7)
Total		720(100.0)	328(45.6)	392(54.4)	285(39.6)	412(57.2)	23(3.2)	658(91.4)	62(8.6)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7.2%(412명)로 가장 많았는데, 5학년과 6학년에서 각각 56.9%와 57.5%로 나타났다. 응급상황에 대해 ‘잘 판단한다’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39.6%(285명), ‘잘 판단하지 못한다’는 경우가 3.2%(23명)로 나타났는데, ‘잘 판단한다’는 경우는 남아가 42.7%로 여아(36.1%)보다 많았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 요구는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3.9%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 요구는 ‘원한다’는 경우가 대상자의 91.4%(658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6학년(91.7%)이 5학년(91.1%)보다 약간 많았으며 여아(93.8%)가 남아(89.2%)보다 많았다. 응급상황에 처한 경험이 없었던 경우

Table 2. Cognition about First Aid Education of the Subjects (N=720)

No	Category	M	SD	Converted 100 points	
				M	SD
1	General rules of first aid	2.64	.37	88.99	12.39
2	Rescue & Moving	2.73	.37	91.16	12.46
3	Fire & Burns	2.78	.40	92.66	13.58
4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2.57	.59	85.83	19.81
5	Musculoskeletal injuries	2.54	.51	84.65	17.23
6	Thermal injuries	2.75	.51	91.62	17.29
7	wounds	2.59	.39	86.42	13.17
8	Poisoning	2.77	.47	92.59	15.94
9	Bites	2.72	.44	90.88	14.87
10	Removing foreign bodies	2.58	.46	85.97	15.42
11	The others	2.54	.53	85.54	17.80
Total		2.64	.30	87.93	10.25

Table 3. Cognition about First Aid Education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Item (N=720)

No	Item	M	SD
1	How to help for 119	2.34	.70
2	How to notify emergency events to family	2.63	.61
3	How to check responsiveness of hurted person	2.64	.54
4	How to help for hurted person	2.69	.52
5	How to cope when the family lose consciousness	2.93	.27
6	How to care when you ate the wrong medicine	2.78	.47
7	Rescue breathing(Help for dyspnea)	2.58	.59
8	How to clean the wound	2.56	.61
9	How to care when the skin lacerate	2.79	.48
10	How to stop bleeding	2.70	.57
11	How to care when the skin punter by a needle or sharp objects	2.71	.52
12	How to care when the skin stick a thorn	2.60	.60
13	How to care when the stings from a insect	2.71	.53
14	How to care when a dog bites	2.74	.50
15	How to stop nasal bleeding	2.20	.74
16	How to care sprained hand or foot	2.57	.61
17	How to care burned wound(by hot water or fire)	2.75	.52
18	How to care frostbite	2.75	.51
19	How to care when a worm in your ear	2.69	.56
20	How to care when sand or dust in your eye	2.35	.72
21	How to care when the neck obstructed by a candy	2.69	.56
22	How to care severe fever	2.67	.57
23	How to care vomiting	2.56	.62
24	How to care diarrhea	2.38	.71
25	How to care receiving an electric shock(electricity flows to body)	2.81	.47
26	How to care when the leg spasm(when can not move your legs)	2.51	.66
27	How to escape safely when you fall in the water	2.82	.45
28	How to help(or rescue) for drowned person	2.70	.56
Total		2.64	.30

(54.4%)가 있었던 경우(45.6%)보다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 요구가 많았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정도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 요구가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

대상자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 평점 3 점 만점에 2.64(±.30)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87.93(±10.25)점이었으며 다른 범주도 모두 8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대상자의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인식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화재 및 화상」이 2.78(±.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독」이 2.77(±.47)점, 「열·냉손상」이 2.75(±.51)점, 「구조운반」이 2.73(±.37)점, 「교상」이 2.72(±.44)점, 「응급처치의 원칙」이 2.64(±.37)점, 「상처」가 2.59(±.39)점, 「이물 제거」가 2.58(±.46)점, 「심폐소생술」이 2.57(±.59)점, 「근 골격 손상」과 「기타」가 각각 2.52(±.51, ±.5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

문항에 있어서는 '가족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의 대처법'이

2.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물에 빠졌을 때 안전하게 나오는 방법'이 2.82점이었고 '감전(전기가 몸에 흐르는 것) 되었을 때의 처치법'이 2.8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피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2.1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2.34점과 '눈에 먼지나 모래가 들어갔을 때의 처치법'이 각각 2.3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는 대상자의 성별($t=-3.012, p=.003$),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능력($F=3.411, p=.034$)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t=.143, p=.887$), 형제순위($t=.449, p=.653$), 가족형태($t=.879, p=.380$), 부모와의 동거여부($t=-.742, p=.380$), 응급상황의 경험유무($t=-1.052, p=.293$)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즉, 대상자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은 남자에 비해 여아에서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3.012, p=.003$)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에 따라서는 '잘 판단한다',

Table 4. Difference of First aid Education Cognition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72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General rules	Rescue & Moving	Fire & Burn	CPR	Musculoskeletal injuries	Termal injuries
Grade	5th	360	2.65(.38)	2.70(.39)	2.79(.41)	2.55(.63)	2.56(.51)	2.74(.52)
	6th	360	2.63(.35)	2.77(.34)	2.77(.39)	2.60(.56)	2.52(.51)	2.75(.51)
	t		.551	-2.232	.594	-1.003	.901	-.072
	p		.582	.026*	.553	.316	.368	.943
Gender	Boy	379	2.63(.38)	2.70(.40)	2.73(.44)	2.55(.63)	2.51(.54)	2.72(.55)
	Girl	341	2.65(.35)	2.77(.33)	2.84(.35)	2.66(.54)	2.57(.47)	2.78(.470)
	t		-.834	-2.316	-3.659	-1.257	-1.456	-1.557
	p		.405	.021*	.000**	.209	.146	.120
Sibling order	1	319	2.66(.36)	2.74(.35)	2.80(.40)	2.59(.58)	2.54(.51)	2.78(.49)
	≥2	401	2.63(.37)	2.73(.38)	2.76(.40)	2.56(.60)	2.54(.51)	2.72(.53)
	t		1.004	.259	1.331	.704	-.018	1.491
	p		.316	.796	.184	.482	.985	.136
Family type	Nuclear	619	2.65(.36)	2.73(.37)	2.78(.40)	2.57(.60)	2.53(.51)	2.75(.50)
	Extended	101	2.60(.39)	2.76(.35)	2.78(.42)	2.60(.535)	2.54(.52)	2.73(.58)
	t		1.256	-.801	-.062	-.528	-.104	.333
	p		.210	.423	.951	.598	.917	.739
Experience of emergency situation	Yes	328	2.62(.38)	2.73(.37)	2.73(.46)	2.57(.60)	2.54(.53)	2.72(.56)
	No	392	2.65(.35)	2.74(.36)	2.82(.35)	2.58(.58)	2.53(.50)	2.78(.47)
	t		1.165	-.064	3.123	-.327	.147	-1.499
	p		.245	.949	.002*	.744	.883	.134
Judgement ability of emergency situation	Very good	285	2.69(.36)	2.75(.39)	2.78(.44)	2.61(.49)	2.58(.52)	2.78(.50)
	Moderate	412	2.62(.36)	2.73(.35)	2.78(.37)	2.55(.58)	2.51(.50)	2.72(.53)
	Not good	23	2.45(.45)	2.62(.42)	2.78(.42)	2.60(.49)	2.50(.56)	2.83(.38)
	F		6.366	1.437	.010	1.139	1.631	1.235
	p		.002	.238	.990	.321	.196	.291

* P<.05, ** P<.000

Table 4. Difference of First aid Education Cognition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N=72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Wounds	Poisoning	Bites	Removing foreign bodies	The others	Total
Grade	5th	360	2.61(.41)	2.78(.49)	2.71(.46)	2.59(.48)	2.53(.56)	2.64(.33)
	6th	360	2.58(.37)	2.77(.46)	2.75(.42)	2.56(.43)	2.55(.50)	2.63(.28)
	t		1.163	.156	-1.254	.832	-.465	.143
	p		.245	.876	.210	.406	.642	.887
Gender	Boy	379	2.55(.41)	2.75(.51)	2.68(.47)	2.56(.47)	2.49(.56)	2.61(.33)
	Girl	341	2.64(.36)	2.81(.42)	2.78(.40)	2.60(.45)	2.59(.49)	2.67(.26)
	t		-2.819	-1.79	-2.935	-1.319	-2.475	-3.42
	p		.005*	.089	.003*	.718	.014*	.003*
Sibling order	1	319	2.58(.39)	2.82(.46)	2.74(.45)	2.58(.45)	2.53(.54)	2.64(.30)
	≥2	401	2.60(.39)	2.75(.49)	2.72(.43)	2.57(.46)	2.54(.52)	2.63(.30)
	t		-.576	2.041	.552	.148	-.284	.449
	p		.565	.042*	.581	.882	.777	.653
Family type	Nuclear	619	2.61(.38)	2.79(.47)	2.74(.43)	2.58(.46)	2.54(.53)	2.64(.30)
	Extended	101	2.51(.42)	2.71(.51)	2.67(.49)	2.58(.44)	2.54(.53)	2.61(.32)
	t		2.137	1.378	1.291	.038	-.037	.879
	p		.033	.170	.197	.970	.170	.380
Experience of emergency situation	Yes	328	2.58(.41)	2.77(.48)	2.70(.41)	2.55(.49)	2.55(.53)	2.62(.32)
	No	392	2.60(.38)	2.79(.46)	2.75(.43)	2.52(.52)	2.52(.52)	2.65(.29)
	t		-.606	-.487	-1.470	.629	.629	-1.052
	p		.545	.627	.142	.530	.530	.293
Judgement ability of emergency situation	Very good	285	2.61(.42)	2.83(.43)	2.77(.41)	2.59(.53)	2.59(.53)	2.67(.33)
	Moderate	412	2.58(.36)	2.75(.48)	2.70(.45)	2.51(.51)	2.51(.51)	2.62(.28)
	Not good	23	2.55(.47)	2.52(.66)	2.57(.52)	2.39(.74)	2.39(.74)	2.55(.37)
	F		.683	5.645	3.713	2.602	2.602	3.411
	P		.505	.004*	.025*	.075	.075	.034*

* P<.05, ** P<.000

‘보통이다’, ‘잘 판단하지 못한다’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411, p=.034).

또한 이를 11개의 범주로 나누어 검증한 결과, 「응급처치의 원칙」은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능력(F=6.366, p=.002)에 따라서, 「구조 및 운반」은 학년(t=-2.232, p=.026)과 성별(t=-2.316, p=.021)에 따라서, 「화재 및 화상」은 성별(t=-3.659, p=.000)과 응급상황 경험 유무(t=-3.123, p=.002)에 따라서, 「상처」는 성별(t=-2.819, p=.005)과 가족형태(t=2.137, p=.033)에 따라서, 「중독」은 형제순위(t=2.041, p=.042)와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능력(F=5.645, p=.004)에 따라서, 「교상」은 성별(t=-2.935, p=.003)과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능력(F=3.713, p=.025)에 따라서, 「기타」범주는 성별(t=-2.475, p=.014)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범주별로 살펴볼 때, 「응급처치의 원칙」은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 ‘잘 판단한다’, ‘보통이다’, ‘잘 판단하지 못한다’의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6.366, p=.002), 「구조 및 운반」은 6학년이 5학년 보다, 여아가 남아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32, p=.026; t=-2.316, p=.021). 「화재 및 화상」은 여아가 남아보다, 응급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659, p=.000; t=-

-3.123, p=.002). 「상처」는 여아가 남아보다, 핵가족이 확대 가족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819, p=.005; t=2.137, p=.033), 「중독」은 형제순위가 첫째인 경우가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높았고,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 ‘잘 판단한다’, ‘보통이다’, ‘잘 판단하지 못한다’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41, p=.042; F=5.645, p=.004). 「교상」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 ‘잘 판단한다’, ‘보통이다’, ‘잘 판단하지 못한다’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935, p=.003; F=3.713, p=.025). 「기타」의 범주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475, p=.014).

논 의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응급상황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명과 예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Kim et al., 2007)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데, 특히 많은 연구에서 응급처치 교육이 적절한 시기를 초등학교 시기라고 지적한 바

에 따라(Hong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45.6%는 응급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Bae(2007)의 연구에서 중학교 때 응급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경우가 18.2%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은 수치로, 이를 통해 초등학생 시기에 응급상황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초반응자는 학생으로, 이들은 상해와 질병의 상황이 응급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하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들은 자신의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을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57.2%)를 차지하였고 대상자들의 대부분인 96.8%에서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도 본 대상자들에게 학교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응급처치 교육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91.4%는 응급상황에 처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고 동기화되어 있을 경우, 학습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은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대상자들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정도는 3점 만점에 평균 2.64(±.30)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Kim 등(2007)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89.3%가 응급처치 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교사들의 안전교육 요구도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은 응급처치였다(Jang, Chong, & Bae, 1997; Hong, 2002). 서울과 6개 광역시의 80개교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와 체육교사 총 11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2004)에서도 응급처치의 필요성에 대해 대상자의 89.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학교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Kim 등(1999)의 연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2.8%가 응급처치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Bae(2007)의 연구에서는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88.9%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Hong 등(2001)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82.1%는 응급처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교사만이 아닌 학생들 역시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Kim 등(1999)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사들이 응급처치에 대하여 전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37.5%라고 보고하였다.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Shin(2002)의

연구에서도 어머니들의 아동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40.2%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발생건수에 있어서 초등학교(38.3%)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30.1%), 고등학교(24.4%), 유치원(6.8%)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Koh et al., 2006)를 통해서도 초등학교에서의 응급처치 교육이 절실함을 알 수 있지만, Lee(2002)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응급처치 내용은 전체 교과서 592쪽 중 6쪽으로 이는 전체 쪽수의 1.0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의 응급처치 교육 내용이 과학적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제시하였다. Kim 등(2008)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의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 교과목 중 [체육] 교과서에서만 관련 단원을 통해 매우 부분적으로 취급하고 있었으며 내용을 살펴볼 때 연계성이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은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을 측정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지만, 만약 조사한다면 이는 매우 낮은 것으로 예측되는데, Bae(2007)의 연구에서 중학생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대상자들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학생들에게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면 이에 대한 효과는 매우 높으리라고 예상된다. 매일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올바른 정보제공은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는 이 시기의 대상자에게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흥미나 오락 위주로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Hong 등(2001)은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시하였으며 Lubrano 등(2005)도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이에 대한 태도와 교육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하였고 Shin(2002)의 연구에서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응급처치 수행과 행위의 정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은 11개의 범주 중, 「화재 및 화상」이 2.78(±.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독」이 2.77(±.47)점, 「열·냉손상」의 순이었고 「구조운반」, 「교상」, 「응급처치의 원칙」, 「상처」, 「이물 제거」, 「심폐소생술」, 「근골격 손상」과 「기타」를 포함한 모든 범주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한 Bae(2007)의 연구에서는 외상의 처치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급처치의 일반원칙은 35.5%, 심폐소생술은 28.8%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와 Oh(2006)의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이 2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골절, 탈구, 염좌 등의 '근 골격 손상'이 13.8%, 열과 냉에 의한 손상이 12.9%, 흔히 일어나는 급한 병(기타)이 11.4%, 구조 및 운반이 8.5%, 중독이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에서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 487명을 대상으로 한 Hyun과 Cho(2007)의 연구에서는 골절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처의 순이었다.

미국소아과학회와 유럽의 소생협회에서는 학령기 아동들에게 기본 인명구조술에 대한 교육을 제안하였는데, 미국의 Hampshire에서는 매년 약 5,000명의 아동이 기본 인명구조술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다(Lewis et al., 1997). Uray 등(2003)은 초등학교 아동들에게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초등학교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전 후에 있어서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전·후의 태도 차이에서 '응급환자를 돕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육 전에는 '절대 도울 수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8.5%이었으나 교육 후에는 0%로 '충분히 도울 수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5.7%로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에 따른 변화를 보여 Kim과 Choi(2007)은 연구를 통해 심폐소생술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폐소생술교육을 통해 태도와 지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기는 초등학교 4, 5학년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올바른 의식확인 방법'에 대해서 교육 전에는 20%의 정답율을 보였으나 교육 후에는 92.4%의 정답율을 보여 74.2%가 상승되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는 대상자의 성별($t=-2.735$, $p=.006$)과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능력($F=3.411$, $p=.034$)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지식수준을 파악한 Hong 등(2001)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응급처치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Kwon과 Chong(2003)의 연구에서는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으므로 추후검증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에 따라서는 '잘 판단한다'는 경우가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가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대상자가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준비된 상황에서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로 학년에 따라서는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응급처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으나(Kwon & Chong, 2003)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만을 대상으

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Kwon과 Chong(2003)의 연구에서는 형제 수가 많을수록 응급처치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형제 수가 많음으로 인해 그만큼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이 아닌 가 추측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응급상황의 경험 유무에 따라서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Bae(2007)의 연구에서는 응급상황을 경험한 학생이 응급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이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후기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였는데, Park(1998)은 학교 교사들 역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대응조치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Seo(2006)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교직 재직기간 중 응급상황을 경험하였는데, 시 지역의 경우에는 비 출혈, 연부조직 손상, 복통, 골절, 염좌 등의 순으로, 읍 면지역의 경우에는 연부조직 손상, 비출혈, 복통, 골절, 염좌 등의 순으로 안전사고와 관련된 응급상황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Hyun과 Cho(2007)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보건교사에 의해 직접 처리된다고 하였는데, 보건교사만이 아닌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와 직원 역시 응급처치의 기본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응급처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 전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생활화하고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차별화된 응급처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을 주기적으로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는데 매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Lee(2002)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론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Cho와 Oh(2006)도 응급처치 교육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하여 대처능력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고 생활태도로 습관화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사고현장에서의 올바르게 적극적인 대처는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Kim 등(1999)은 교사들이 응급처치 교육 시 느끼는 애로점은 교육자료의 부족이 48.3%(75.9%)이며 이는 학교현

장에서 응급처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의 하나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학교의 응급처치 교육 보조자료의 보유현황에 대하여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가 전체의 71.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과과정을 정비하여 교과서에서의 응급처치 내용을 보완하고 각종 교육자료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 및 정부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의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학생 및 교사가 응급처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되는 학령기 5, 6학년 아동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초등학교에서의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4개 초등학교에서 5-6학년 각각 360명 씩 72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을 응급처치에 대한 문헌과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하여 「응급처치의 원칙」, 「구조 및 운반」, 「화재 및 화상」, 「심폐소생술」, 「근 골격 손상」, 「열·냉 손상」, 「상처」, 「중독」, 「교상」, 「이물 제거」, 「기타」의 11개의 범주로 분류된 3점 척도의 28문항의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 평점 3점 만점에 2.64(±.30)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87.93(±10.25)점이었으며 다른 범주도 모두 8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인식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화재 및 화상」이 2.78(±.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독」이 2.77(±.47)점, 「열·냉손상」이 2.75(±.51)점, 「구조운반」이 2.73(±.37)점, 「교상」이 2.72(±.44)점, 「응급처치의 원칙」이 2.64(±.37)점, 「상처」가 2.59(±.39)점, 「이물 제거」가 2.58(±.46)점, 「심폐소생술」이 2.57(±.59)점, 「근 골격 손상」과 「기타」가 각각 2.52(±.51, ±.53)점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는 대상자의 성별($t=-3.012, p=.003$)과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능력($F=3.411, p=.034$)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초등학생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

식은 매우 높으므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내용은 보완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때는 각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강화하고 실제적이고 사례 중심적인 처치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응급처치에 대한 새로운 교육자료나 프로그램,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사들이 응급처치 교육에 자신감을 갖고 실시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여 수준에 맞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Bae, J. O. (2007). *Cognition and health education need for first aid in middle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Cho, J. P., Min, Y. K., Park, N. S., You, H. R., Choi, H. K., Gong, J. Y., & Ji, H. K. (2006). *Activation plan of emergency medical education for elementary · middle · high school*.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Cho, K. H., & Oh, D. J. (2006).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first aid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Korea Sport Research, 17*(6), 671-680.

Emergency Medicine Law (2008).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links.assembly.go.kr/law>

Hong, H. S. (2002). A study on the teacher's safety cognition about the infant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unkuk University. Seoul.

Hong, K. Y., Nam, C. H., Chai, S. B., We, G. B., & Kim, G. Y. (2001). Middle and high school' knowledge level on first aid.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and Promotion, 18*(2), 75-86

Hyun, K. S., & Cho, B. J. (2007). The study on a counterplan and status of emergency care on school safety accidents. *Journal of Korea Sport Research, 18*(2), 655-662.

Jang, Y. H., Chung, M. R., & Bae, S. Y. (1997). Safet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n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e. *J of Child Education Research, 17*(1), 23-44.

Kho, K. S., Kim, D. J., Kim, E. J., Nam, E. J., Jung, H. Y., & Cho, M. Y. (2006). *School safety manual*,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 Kim, H. C., Kim, S. H., Park, K. D., & Kim, S. J. (1999). *The study of first aids education in middle school*. Institute of Physical Education Sports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3, 89-102.
- Kim, H. J., & Choi, E. S. (2007). The effectiveness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raining in elementary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11(2), 51-66.
- Kim, J. W., Cho, B. J., & Kim, D. K. (2007). A study assessing the education necessity and cognition of health teachers on first aid. *Journal of Korea Sport Research*, 18(5), 1055-1064.
- Kim, M. S., Park, M. H., & Lee, H. S. (2006). The kindergarten teacher's actual condition of first-aid education. *J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3(1), 91-114.
- Kim, S. J., Lee, J. E., Kang, K. A., Song, M. K., Jang, E. Y., & Kim, S. H. (2008). Contents analysis of first aid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4(2), 163-175.
-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2008) www.kacpr.org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http://nso.go.kr>
- Kwon, H. R., & Chong, J. Y. (2003). Actual survey of College students' knowledge of First aid.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7(1), 81-94.
- Lee, C. H. (2002). *A cotent analysis of first aid education in textbooks of primary/middle/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Busan.
- Lee, Y. S. (2003). *Needs for first Aid education in curriculum of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 University, Gyeongsan.
- Lester, C. A., Weston, C.F.M., Donnelly, P. D., Assar, D., & Morgan, M. J. (1994). The need for wider dissemination of CPR skills: are schools the answer. *Resuscitation*, 28, 233-237.
- Lewis, R. M., Fulstow, R., & Smith, G. B. (1997). The teaching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n schools in Hampshire. *Resuscitation*, 35, 27-31.
- Lubrano, R., Romero, S., Scoppi, P., Cocchi, G., Baroncini, S., Elli, M., Turbacci, M., Scateni, S., Travasso, E., Benedetti, R., Cristeni, S., & Moscatelli, R. (2005). How to become an under 11 rescuer: a practical method to teach first aid to primary schoolchildren. *Resuscitation*, 64, 303-307.
-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2004). *The actual conditionn of safety and first aid education of elementary/ middle/high school*.
- Park, C. W. (2005) *The effect appropriateness of CPR training in elementary school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on.
- Park, S. E., Chung, Y. K., & Park, E. J. (2001). School safey accident and the status of school safety management. *Journal of Nursing in Chung-Ang University*, 5(20), 79-88.
- Park, Y. S. (1998). *School Health*. Seoul: ShinkwangPub.
- Seo, S. H. (2006). *Knowledge and health education need for emergency treatment in some elementary school's teac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Shin, S. H. (2002). Development of a first-aid education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hamyook University, Seoul.
- Uray, T., Lunzer, A., Ochsenhofer, A., thanikkel, L., Zingerle, R., Lillie, P., Brandl, E., & Sterz, F. (2003). Feasibility of life-supportinf first aid(LSFA) training as a mandatory subject in primary schools. *Resuscitation*, 59, 211-220.
- Won, H. G. (2003). *An evaluation on the safety of the child care-center's facilities based on the consciousness safety of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Venture Management, Jinju National University. Jinju.